

미국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의 현황

- 우리 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 경 주*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가족주거학과 교수)

주 수 언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연구목적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학문영역에서 창의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과학대학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요구와 학생들의 선호 영향으로 주거학 분야 중 실내디자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내디자인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100여 곳으로 알고 있으나 이 교육 기관의 소속 학과 명이 다양하며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 분포 등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런 현황으로 우리 나라 교육기관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관련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서울 소재 유학원에서 이 관련 학과를 갖는 대학에 대한 정보는 어두운 편으로 수 곳의 정보 뿐으로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국에서는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이 몇 곳 있으며, 어떤 학과명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지역 분포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는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 입수가 가장 신속하고 최신의 자료 입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 학과를 갖는 미국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의 자료는 관련 책자 등을 통하여 주로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기관의 수, 지역분포, 학과명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미국에는 관련 교육기관이 115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대학이 35곳으로 31.5%를 차지 하였고, 대학교가 80곳으로 69.5% 이었다.
2. 이들 교육기관의 소속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의 53개 주중에서 모든 주에 분포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에 있어서는 다소 지역 편중이 인정되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11곳 9.5%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뉴욕으로 10곳 8.7%, 텍사스 9곳 7.8%, 조지아 오하이오 순이었다.
3. 소속영역을 분석해 보니 크게 5가지로 구분 가능하였다. Interior Design이 35곳, Human Sciences and Design이 30곳, Art and design이 20곳으로 Interior Design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우리 나라의 관련 교육 특징은 대학이 60곳 56%이고, 대학교가 47곳 43.9%로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은 대학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고, 지역 분포에서는 서울이 36%로 서울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